

# 정약용의 《周易四箋》에 보이는 한자자형에 대한 인식 연구\*

徐漢庸\*\*

## < 목 차 >

1. 緒論
2. 字形構造
3. 字形變遷
4. 字形關係
5. 結論

## 1. 緒論

河永三은 《<六書策>에서 보이는 朴齊家와 李德懋의 文字觀에 대한 比較》에서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해 논하면서 “朝鮮後期實學史에 있어 그들의 思想體系는 後代에 秋史(金正喜, 1786-1856)의 金石學과 茶山(丁若鏞, 1762-1836)의 經學 그리고 五州(李圭景, 1788-未詳)의 言語學에 影響을 주었다. 이 점만으로 볼 때도, 楚亭과 雅亭 두 사람의 문자관에 대한 研究는 重要한 學術價値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1)</sup>라고 하여 朴齊家·李德懋·金正喜·丁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5B5A07035745).

\*\*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契約教授, shuhy@hanmail.net

1) “在朝鮮後期實學歷史上, 他們的思想體系影響了後代秋史(金正喜, 1786-1856)之金石學과 茶山(丁若鏞, 1762-1836)의 經學·五州(李圭景, 1788-未詳)의 言語學, 僅從這一點而言, 對楚亭和雅亭二人的文字觀的研究, 也有其重要的學術價値.”- 河永三, <《六書策》所見

若鏞·李圭景의 문자언어학적 학문의 價値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茶山の 학문이 韓國文字學史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楊沅錫은 《朝鮮 後期 文字訓詁學 研究》에서 “조선 후기 實學의 거두로 평가받는 茶山 丁若鏞(1762~1836)은 평생을 학문 연구에 몰두하여 학문 제반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저술을 남겼으며, 특히 經學 연구에 있어서 걸출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문집 《與猶堂全書》에서 문자훈고학의 효용 및 의의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또 경학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문자훈고학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였다.”<sup>2)</sup>라고 하여 茶山の 《與猶堂全書》에 문자학에 대한 견해가 있음을 밝히고, <字說>·<荜菴李基讓墓誌銘>·<蒙學義彙序>·<千文評>·<教釋說> 등에서 보이는 茶山の 文字學에 대한 견해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茶山이 문자학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茶山の 저술은 그 양이 매우 방대하다. 《與猶堂全書》의 韓國文集叢刊本은 6卷에 달하고 韓國經學資料集成에 수록되어 있는 茶山の 경학 자료 역시 15卷에 이르는데, 이 때문에 그 저술 속에서 漢字字形에 대해 언급한 문장을 찾아내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한국고전종합DB에서 《與猶堂全書》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고, 韓國經學資料 시스템에서 茶山の 경학 저술인 《檀弓箴誤》·《周易四箋》·《易學緒言》·《詩經講義》·《詩經講義補遺》·《尙書古訓》·《讀尙書補傳》·《梅氏尙書平》·《尙書知遠錄》·《孟子要義》·《論語古今注》·《論語手筭》·《中庸自箴》·《中庸講義補》·《大學公義》 등의 저서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통해 茶山이 漢字字形에 대해 언급한 문장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다.

이에 茶山の 문자학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기에 앞서 한국고전종합DB와 韓國經學資料 시스템의 茶山 저술에서 문자학과 관련된 용어를 검색하였는데, 그

朴齊家與李德懋之文字觀比較>, 《國際中國學研究》第6輯, 한국중국어학회, 2003, 358쪽.

2) 楊沅錫, 《朝鮮 後期 文字訓詁學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6년12월, 77쪽.

검색어와 추출 건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고전종합DB]

字書(64) · 說文(284) · 爾雅(249) · 許慎(55) · 字從(129) · 諧聲(40) · 六書(33) · 篆文(14) · 聲轉(19) · 音同(1) · 俗以(43) · 假借(46) · 又作(61) · 古篆(14) · 或作(126) · 古字(22)

[韓國經學資料 시스템]

字書(40) · 說文(325) · 爾雅(175) · 許慎(43) · 字從(143) · 諧聲(35) · 六書(26) · 篆文(8) · 聲轉(9) · 音同(1) · 俗以(7) · 假借(33) · 又作(40) · 古篆(11) · 或作(147) · 古字(18)

위의 검색어 중 漢字字形 구조를 설명하는 ‘字從’을 포함한 문장은 茶山의 漢字字形에 대한 인식을 살펴인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茶山의 경학 자료 15種에 대한 ‘字從’에 따른 검색 추출 건수 143건 중 《周易四箋》이 차지하는 건수가 92건으로 64%를 차지한다. 이에 따르면 茶山의 문자학에 있어 《周易四箋》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茶山의 《周易四箋》에서 보이는 漢字字形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여 이후 茶山 저술에 대한 문자학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字形構造

《周易四箋》에서 한자의 字形構造를 풀이한 예를 살펴보면, 指事字를 풀이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다음에서 象形字 · 會意字 · 形聲字의 3가지 글자 풀이를 통해 《周易四箋》에 보이는 漢字字形構造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 2.1 象形字







《周易四箋》에 보이는 象形字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丁若鏞과 그의 맏아들 丁學淵 그리고 둘째아들 丁學游가 朱子の 《周易本義》에 있는 글자풀이와 中國 字書의 古文字 풀이를 참고하거나 혹은 《周易》의 卦 모양에 따라 풀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구체적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1 屯




朱子는 《周易本義·屯》에서 ‘屯’字에 대해 “屯字，象艸穿地始出而未申也。〔‘屯’字는 ‘艸’이 땅을 뚫고 비로소 나와서, 아직 펴지 못한 것을 象形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丁若鏞은 《周易四箋·屯》에서 朱子の 말을 인용하고 “屯之字義，本然，（ノ象遇險也，ㄣ象艸形勾曲）故春字從屯也。（古作屯。）〔‘屯’字의 뜻은 본래 이러한 것이니（ノ은 험난함을 만난 것을 象形한 것이고，ㄣ은 ‘艸’의 모양이 굽은 것을 象形한 것이다）이 때문에 ‘春’字가 ‘屯’을 따르는 것이다。（예전에는 ‘屯’으로 썼다）〕”라고 하여 ‘屯’字의 字形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許慎은 《說文·艸部》에서 ‘屯’字에 대해 “屯，難也。象艸木之初生，屯然而難。從艸貫一。一，地也。尾曲。《易》曰：‘屯，剛柔始交而難生。’〔‘屯’은 ‘곤란’을 뜻한다。艸木이 처음 나와 곤란에 처한 것을 상형한 것이다。‘艸’이 ‘一’을 꿰뚫은 것을 따른다。‘一’은 땅이다。꼬리부분이 굽었다。《易》에서 ‘屯’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만나기 시작함에 나오기 어려움을 뜻한다。〕”라고 풀이하고, <艸部>에서 ‘春’字에 대해 “春，推也。從艸從日，艸春時生也。屯聲。〔‘春’은 밀 ‘推’의 뜻을 갖고 있다。‘艸’와 ‘日’을 따르는데，풀이 봄에 생겨남을 뜻한다。‘屯’聲이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를 통해 丁若鏞이 《說文》의 풀이

를 토대로 朱子의 풀이를 한층 심화시켜 ‘ノ’과 ‘L’의 字形 의미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春’字와의 관련성까지도 설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1.2 生

丁若鏞은 《周易四箋·坤》에서 “衆萬之生根, 皆著土, (古文生作, 象出土) 萬物資生也. [못 만물이 뿌리를 낼 때 모두 흙에 의지하기 때문에 (古文的 ‘生’은 ‘’으로 쓴다. ‘’이 흙에서 나오는 것을 象形한 것이다.) 萬物이 그것을 바탕으로 생겨난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여 ‘生’의 古文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 《說文·生部》에서 ‘生’字에 대해 “, 進也. 象艸木生出土上. [‘’은 ‘나오다’의 뜻이다. 艸木이 흙 위로 나온 것을 상형한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生’字에 대한 풀이가 《說文》의 풀이에 토대를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 2.1.3 疒

丁學淵은 《周易四箋·巽》에서 “疾病爲字, 象人倚牀. (字從人, 從牀) [‘疾’과 ‘病’은 글자를 만든 방법이 사람이 平床에 기댄 모습을 象形한 것이다. (글자가 사람을 따르고, 平床을 따른다.)]”라고 하여 ‘疾’과 ‘病’의 部首字인 ‘疒’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 《說文·疒部》에서 ‘疒’字에 대해 “, 倚也. 人有疾病, 象倚箸之形. [‘’은 ‘기대다’의 뜻이 있다. 사람이 疾病에 걸려 기대고 있는 것을 상형한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學淵의 풀이가 《說文》의 풀이에 토대를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說文》의 풀이에서는 사람만을 언급하고 平床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丁學淵이 평상을 따르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疒’의 古文字形으로 ③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字形에 따르면 丁學淵의 풀이가 매우 정확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1.4 出

丁若鏞은 《周易四箋·說卦傳》에서 “出字, 象艸出口中. [‘出’字은 ‘艸’이 ‘口’속에서 나오는 것을 象形한 것이다.]”라고 하여 ‘出’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愼은 《說文·出部》에서 “, 進也. 象艸木益滋, 上出達也. [‘’은 ‘나오다’의 뜻이다. 艸木이 변식하여 위로 올라온 것을 상형한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出’字에 대한 설명이 許愼의 《說文》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그 풀이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中國 字典에서도 丁若鏞과 같이 풀이한 경우를 찾을 수 없는데, 이를 통해 丁若鏞의 글자 풀이가 中國 字典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 풀어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丁若鏞은 앞의 ‘生’字에 대한 풀이에서도 《說文》의 ‘象艸木生出土上’과 다르게 ‘象出土’로 풀이하였는데, ‘艸木’에 해당하는 ‘’字形을 직접 제시하여 풀이하는 방식이 ‘出’字의 풀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1.5 求

丁學游는 《周易四箋·屯》에서 “《易》例, 艮爲求. (字從中有丨) 故<雜卦>以觀爲求. (觀大艮) [《易》例에 艮은 求함의 뜻이 된다. (글자가 ‘’ 가운데 ‘丨’이 있는 것을 따른다.) 이 때문에 <雜卦傳>에서도 觀卦를 ‘求’라고 한 것이다. (觀卦는 大艮이다.)]”라고 하여 ‘求’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愼은 《說文·裘部》에서 “, 皮衣也. 從衣求聲. 一曰象形, 與衰同意. 凡裘之屬皆從裘. , 古文省衣. [‘’는 가죽옷이다. ‘衣’의 뜻을 따르고 ‘求’의 소리를 따른다. 象形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衰’와 조자 뜻이 비슷하다. ‘裘’에 속하는 것들은 모두 ‘裘’를 따른다. ‘’는 古文으로 ‘衣’가 생략된 것이다.]”라고 풀이하

3) 《古文字詁林》, 第7券, 14쪽.

었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求’字에 대한 설명이 《說文》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說文》은 ‘求’가 ‘裘’字에서 ‘衣’를 省略한 글자라고 설명하였는데, ‘裘’에 대해 ‘從衣求聲’라고 하고 ‘一曰象形’이라고 한 것을 보면 許慎이 ‘求’의 造字方法에 대해 象形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丁學淵은 《說文》의 풀이와 달리 ‘求’가 《周易》의 艮卦 符號인 ‘三三’를 따른다고 풀이하었는데, 이러한 설명은 《周易》의 괘 모양과 관련시키고자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2.2 會意字

《周易四箋》에 보이는 會意字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丁若鏞 父子의 字形 풀이가 許慎이 《說文》에서 한 풀이와 거의 일치하지만 다르게 설명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許慎이 《說文》에서 小篆 字形에 따라 글자를 설명한 것과 달리 丁若鏞은 楷書 字形에 따라서도 글자를 풀이하였고, 특히 會意字에 대한 풀이 방식에 있어 許慎이 ‘從’으로 그 字形을 설명한 것과 달리 丁若鏞은 ‘從’ 뿐만 아니라 ‘象’으로도 會意字의 構成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丁若鏞은 《說文》이후 字典에 보이는 글자 풀이도 참고하였는데, 아래에서 그 구체적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1 章

丁學淵은 《周易四箋·坤》에서 “章者，樂之一終也。(《說文》云) 震爲音樂之卦，故震則爲章也。(字從音，從十) [章은 音樂이 한번 마친 것이다.(《說文》에서 말하였다) 震은 音樂의 卦이기 때문에 震이 章의 뜻이 된다.(글자가 ‘音’을 따르고, ‘十’을 따른다)]”라고 하여 ‘章’의 뜻과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 《說文·音部》에서 ‘章’字에 대해 “章，樂竟爲一章。從音從十。十，數之終也。[‘章’은 音樂이 한번 마치게 되는 一章을 뜻한다. ‘音’과 ‘十’을 따른다. ‘十’

은 數의 끝이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學淵이 《說文》의 뜻을 풀어 설명하고 字形에 대해서도 《說文》과 동일하게 풀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2.2 天·至

丁若鏞은 《周易四箋·乾》에서 “大哉者, 天德也. (天字從大, 又至字從土) [‘大哉’라고 한 것은 하늘의 덕을 말한 것이다. (‘天’字는 ‘大’를 따르고, ‘至’字는 ‘土’를 따른다)]”라고 하여 ‘天’과 ‘至’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 《說文·一部》에서 “𠂔, 顛也. 至高無上, 從一、大. [‘𠂔’은 머리 ‘顛’과 뜻이 같다. 지극히 높아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一’과 ‘大’를 따른다.]”라고 풀이하고, <至部>에서 “𠂔, 鳥飛從高下至地也. 從一, 一猶地也. 象形. 不, 上去; 而至, 下來也. [‘𠂔’은 새가 날아 위에서 땅 아래로 내려 온 것을 뜻한다. ‘一’을 따르는데, ‘一’은 땅을 뜻한다. 象形한 것이다. ‘不’이 위로 올랐다가 아래로 내려온 것을 뜻한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天’字에 대한 설명은 《說文》과 같지만 ‘至’字에 대한 설명은 《說文》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說文》에서 ‘至’字에 대해 ‘一’과 ‘不’의 會意字로 풀이한데 반해 丁若鏞은 ‘一’이 아닌 ‘土’를 따르는 字形으로 풀이하였는데, 이러한 丁若鏞의 풀이는 古文字 字形이 아닌 楷書 字形에 따라 풀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2.2.3 明·行

丁若鏞은 《周易四箋·履》에서 “明者, 雙明也. (字從日, 從月) 行者, 雙行也. (左行而右行) 一目既眇, 不足有明也. 一足既跛, 不足有行也. [‘明’은 두 눈의 밝음이고, (글자가 ‘日’을 따르고, ‘月’을 따른다) 行은 두 다리의 다님이다. (왼쪽발로 걷고 오른쪽발로 걷는다) 한 눈이 멀면, 밝음이 부족하게 되고, 한 다리를 절면 다님에 부족함이 있게 된다.]”라고 하여 ‘明’과 ‘行’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



하였다. 許慎은 《說文·明部》에서 ‘明’字에 대해 “𡩉, 照也. 從月從囧. 凡𡩉之屬皆從𡩉. 𡩉, 古文𡩉, 從日. [‘𡩉’은 ‘비추다’의 뜻이다. ‘月’과 ‘囧’의 뜻을 따른다. ‘𡩉’에 속하는 것은 모두 ‘𡩉’을 따른다. ‘𡩉’은 古文의 ‘𡩉’으로 ‘日’을 따른다.]”라고 풀이하고, <行部>에서 ‘行’字에 대해 “𡩉, 人之步趨也. 從彳從丁. [‘𡩉’은 사람이 걷는 것을 뜻한다. ‘彳’과 ‘丁’을 따른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明’과 ‘行’字에 대한 풀이가 《說文》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그 뜻풀이에 있어 두 字形으로 이루어진 會意字의 뜻을 잘 살려서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明’의 字形 풀이에 있어서도 小篆의 ‘𡩉’字形이 아닌 古文과 楷書의 ‘日’字形에 따라 글자를 풀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4 師

丁若鏞은 《周易四箋·師》에서 “師者, 以一而帥衆也. (字從一, 從帥) 弟子群集. 以一人而帥之, 則名之曰師也. 卒伍衆盛, 以一人而帥之, 則名之曰師也. 周制, 五百人爲旅, 五旅爲師. (二千五百人) [‘師’는 여러 사람을 통솔하는 한 사람을 뜻한다. (글자가 ‘一’을 따르고, ‘帥’을 따른다) 弟子가 모였을 때 통솔하는 한 사람을 ‘師’라고 하고, 병졸이 모였을 때 통솔하는 한 사람을 ‘師’라고 한다. 周나라 제도에 따르면 오백 명을 ‘旅’라고 하고, ‘五旅’를 ‘師’라고 했다. (이천오백 명)]”라고 하여 ‘師’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 《說文·市部》에서 ‘師’字에 대해 “師, 二千五百人爲師. 從市從自. 自, 四市, 衆意也. [‘師’, 2500 명의 사람을 ‘師’라고 한다. ‘市’과 ‘自’를 따른다. ‘自’는 사방을 빙 두른 것으로 많다는 뜻을 나타낸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師’字에 대한 풀이가 《說文》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說文》이 ‘師’字에 대해 ‘市’과 ‘自’를 따른다고 풀이한 것과 달리 丁若鏞은 ‘一’과 ‘帥’을 따른다고 풀이한 것이다. ‘師’字의 小篆을 보면 그 字形이 ‘師’로 오른쪽 편방인 ‘市(市)’의 아래 字形이 ‘卣(市)’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許慎은 古文字 字形을 기준으로 글자를 설명했기 때문에 ‘市’이 아닌 ‘市’을 따른다고 풀이한 것이

고, 丁若鏞은 古文字 字形이 아닌 楷書 字形에 따라 풀이하여 ‘一과 帥’을 따르는 것으로 풀이한 것을 알 수 있다.

### 2.2.5 安







丁若鏞은 《周易四箋·安貞例》에서 “安貞者, 安靜之事也. 安之爲字, 象女在室中. [‘安貞’이라는 것은 安靜된 일을 뜻한다. ‘安’字는 女子가 집안에 있는 것을 象形하여 만든 것이다.]”라고 하여 ‘安’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愼은 《說文·宀部》에서 ‘安’字에 대해 “(宀), 靜也. 從女在宀下. [‘(宀)’은 조용하다는 뜻이다. ‘女’가 ‘宀’ 아래 있는 것을 따른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글자 풀이가 許愼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宀’을 常用字인 ‘室’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中國의 字書を 살펴보면 《字彙》에서 ‘安’에 대해 “從女在屋中, 故云安. [여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따르는데, 이 때문에 편안하다고 한 것이다.]”이라고 하였는데, 丁若鏞의 풀이가 ‘從’을 ‘象’으로 하고, ‘屋’을 ‘室’로 바꾸어 풀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會意字인 ‘安’을 풀이하는데 있어 ‘從’을 쓰지 않고 ‘象’으로 한 것은 會意字를 象形字와 같이 풀이한 것으로 글자풀이에 있어 象形字와 會意字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6 利

丁若鏞은 《周易四箋·无妄》에서 “利者, 象以刀刈禾也. (字從禾, 從刀) [‘利’는 칼로 벼를 베는 모습을 상형한 것이다. (글자가 ‘禾’를 따르고 ‘刀’를 따른다.)]”라고 하여 ‘利’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愼은 《說文·刀部》에서 ‘利’字에 대해 “(利), 銛也. 從刀. 和然後利, 從和省. 《易》曰: ‘利者, 義之和也.’ [‘(利)’는 ‘날카롭다’의 뜻이다. ‘刀’를 따른다. 화합한 연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利’의 생략형을 따르는 것이다. 《易》에서 ‘이익은 의리가 화합한 것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풀이하었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글자 풀이가 許慎이 ‘利’字的 ‘禾’字形에 대해 ‘和’의 省略形을 따른다고 풀이한 것과 달리 ‘禾’를 따른다고 설명한 것을 알 수 있다. 역대 中國字典을 찾아보면 모두 許慎의 설을 따르고 丁若鏞과 같이 ‘以刀刈禾’로 풀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는데, ‘象以刀刈禾也’의 풀이에 따라 ‘刀’와 ‘禾’의 결합으로 ‘利’자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은 丁若鏞의 독창적 견해로 볼 수 있다. 한편 ‘利’字 풀이에 있어서도 앞의 ‘安’字 풀이에서와 마찬가지로 會意字를 설명함에 있어 象形字의 풀이 방식인 ‘象’으로 설명하였는데, 다만 ‘利’字에 대해서는 ‘安’字와 달리 ‘從’으로도 字符를 설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7 困

丁若鏞은 《周易四箋·无妄》에서 “困之爲字，象木在口中。(古文圍作口)〔‘困’은 ‘木’이 ‘口’ 속에 있는 것을 象形하여 만든 글자이다。(古文的 ‘圍’를 ‘口’로 적는다)〕”라고 하여 ‘困’字的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 《說文·口部》에서 ‘困’字에 대해 “，故廬也。從木在口中。〔은 옛날의 오두막집이다. ‘木’이 ‘口’ 안에 있는 것을 따른다.〕”라고 풀이하었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이 ‘困’字에 대해서도 ‘從’을 ‘象’으로 바꾸어 會意字를 풀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丁若鏞은 ‘口’字形에 대해서 古文的 ‘圍’字라고 보충 설명하였는데, 《說文·口部》에서 ‘口’字에 대해 “，回也。象回市之形。〔‘口’는 ‘回’의 뜻이다. 휘감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라고 하고, ‘圍’字에 대해 “，守也。從口韋聲。〔는 ‘지키다’의 뜻이다. ‘口’의 뜻을 따르고, ‘韋’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여 서로 다른 글자로 풀이한 것을 볼 때 丁若鏞의 ‘口’字에 대한 설명은 《說文》을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說文》이후의 字書を 살펴보면 ‘口’가 古文的 ‘圍’라고 풀이한 예가 《玉篇》의 “，于非切。回也。古圍字。〔‘口’는 ‘于’와 ‘非’의 反切音이다. ‘回’의 뜻이다. ‘圍’의 古字이다.〕”에서 처음 보인다. 이를 통해 丁若鏞이 글자를 풀이함에 있어 《說文》의 풀이 외에도 다른 字書の 풀이를 참고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3 形聲字

《周易四箋》에 보이는 形聲字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丁若鏞이 字形이 지니는 뜻에 치중하여 글자를 풀이하였기 때문에 그가 形聲字의 義符를 주로 하여 설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許慎이 聲符로 풀이한 字形 역시 義符로 풀이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字形과 글자가 지니는 뜻을 연관 지으려 했기 때문에 字形을 풀이함에 있어 本義를 국한하지 않고, 假借義에 따라서도 글자의 뜻을 지닌 義符로 설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會意字와 마찬가지로 古文字 字形이 아닌 楷書 字形에 따라서도 글자를 풀이하였기 때문에 《說文》과 다르게 字形을 해석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3.1 鞶

丁若鏞은 《周易四箋·訟》에서 “鞶帶者，革帶也。(字從革) 革帶者，鞶帶也。[鞶帶는 革帶를 뜻하고, (글자가 ‘革’을 따른다) 革帶는 鞶帶를 뜻한다.]”라고 하여 ‘鞶’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 《說文·革部》에서 “鞶，大帶也。《易》曰：‘或錫之鞶帶。’ 男子帶鞶， 婦人帶絲。 從革般聲。 [‘鞶’은 큰 혁대이다. 《易》에서 ‘큰 혁대를 하사하였다.’라고 하였다. 男子는 혁대를 차고, 婦人은 실을 찼다. ‘革’의 뜻을 따르고, ‘般’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풀이하었는데, 이에 따르면 許慎이 ‘鞶’의 ‘革’과 ‘般’ 字形을 모두 풀이하었지만 丁若鏞은 그 義符 字形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聲符 字形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丁若鏞이 글자 字形을 설명함에 있어 뜻과 관련 있는 義符 字形을 주로 하여 글자를 풀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3.2 氣

丁若鏞은 《周易四箋·乾》에서 “乾則爲氣. (字從气) 是陽氣也. [乾은 氣인데 (글자가 ‘气’를 따르다) 바로 陽氣이다.]”라고 하여 ‘氣’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愼은 《說文·米部》에서 “飧, 饋客芻米也. 從米气聲. [‘飧’는 손님에게 대접하는 거친 쌀이다. ‘米’의 뜻을 따르고, ‘气’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고, <气部>에서 “𩇛, 雲气也. 象形. [‘𩇛’는 구름의 기운이다. 象形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說文》의 풀이에 따르면 ‘氣’의 本義는 ‘饋客芻米’이기 때문에 ‘气’는 뜻과 관련 없는 聲符일 뿐이다. 丁若鏞은 《周易四箋》에서 ‘字從’을 씌어 있어 뜻을 나타내는 義符를 설명할 때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도 ‘氣’에 대해 그 뜻을 나타내는 ‘气’를 따르는 것으로 풀이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丁若鏞이 글자의 字符를 이용하여 글자의 뜻을 풀이할 때 許愼과 같이 글자의 本義에 따른 것이 아니라 本義 외의 假借義와도 字符의 뜻이 관련되면 ‘字從’으로써 그 字符의 뜻과 일치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丁若鏞의 글자풀이는 本義에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聲符를 假借義에 따른 義符로 풀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3.3 離·禽

丁若鏞은 《周易四箋·乾》에서 “離則爲雉, (<說卦>文) 飛鳥之卦也. 離字從隹, 禽字從离, 苟九家之离爲飛, 其有徵矣. [离는 꿩을 뜻하기 때문에 (<說卦>에 나오는 문장이다.) 나는 새를 상징하는 卦이다. ‘離’字는 ‘隹’를 따르고, ‘禽’字는 ‘离’를 따른다. 苟九가가 离를 ‘飛’의 뜻으로 본 것은 근거가 있다.]”라고 하여 ‘離’와 ‘禽’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愼은 《說文·隹部》에서 “𪗇, 黃倉庚也. 鳴則蠶生. 從隹离聲. [‘𪗇’는 黃倉庚이다. 울면 누에가 생긴다. ‘隹’의 뜻을 따르고, ‘离’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여 ‘離’字가 ‘隹’의 뜻을 따른다고 풀이하였다. 하지만 <犮部>에서 “𪗇, 走獸總名. 從犮, 象形, 今聲. 禽·离·

兕頭相似. [‘兕’은 들짐승을 통틀어 말한다. ‘𪔐’의 뜻을 따르는데, 象形한 것이다. ‘𪔐’의 소리를 따른다. ‘禽’·‘隹’·‘兕’의 머리는 비슷하다.]”라고 하여 ‘禽’과 ‘隹’의 머리 부분의 古文字形이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하고 ‘禽’이 ‘隹’를 따르는 것이 아닌 ‘𪔐’과 ‘𪔐’의 字形을 따르는 것으로 풀이하였는데, 이것으로 볼 때 丁若鏞이 ‘禽’字를 설명함에 있어 《說文》과 같이 古文字形에 따라 풀이하지 않고 楷書 字形에 따라 풀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3.4 巡



丁若鏞은 《周易四箋·坤》에서 “川者, 順之義也. 順馴等字, 皆從川, 其實從𪔐也. (流字從𪔐, 則川本𪔐也) 故周行中土, 謂之巡, (字從𪔐) 而音與馴同也. [‘川’은 順의 뜻이다. ‘順’과 ‘馴’ 등의 글자는 모두 ‘川’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𪔐’을 따르는 글자들이다. (‘流’字가 ‘𪔐’을 따르는 것으로 볼 때 ‘川’도 본래 ‘𪔐’이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天子가 中原의 땅을 둘러보는 것을 ‘巡’이라 한다. (글자가 ‘𪔐’을 따른다) 또한 발음도 ‘馴’字와 같다.]”라고 하여 ‘巡’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 《說文·辵部》에서 “𪔐, 延行兒. 從辵川聲. [‘𪔐’은 줄지어 가는 모습을 뜻한다. ‘辵’의 뜻을 따르고, ‘川’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여 ‘巡’의 ‘川’을 聲符로 풀이하였는데, 丁若鏞은 ‘巡’의 ‘𪔐’ 字形에 대해 義符를 뜻하는 ‘從’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그音が ‘馴’과 같다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볼 때 丁若鏞이 ‘巡’의 ‘𪔐’이 원래 ‘川’과 같은 글자였기 때문에 ‘馴’의 ‘川’과 같은 발음을 나타낸다는 것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3.5 和

丁若鏞은 《周易四箋·乾》에서 “和字, 象以口食禾. [‘和’字는 입(口)으로 곡식(禾)을 먹는 것을 象形한 글자이다.]”라고 하여 ‘和’字의 字形에 대해 會意字로 설명하였다. 許慎은 《說文·口部》에서 “𪔐, 相摩也. 從口禾聲. [‘𪔐’는 서

로 응하는 것이다. ‘口’의 뜻을 따르고, ‘禾’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여 ‘和’에 대해 形聲字로 풀이하었다. 歷代 中國字典을 찾아보면 모두 《說文》과 같이 풀이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和’字에 대해 ‘以口食禾’와 같이 會意字로 풀이한 것이 丁若鏞의 독창적 인식임을 알 수 있다.

### 2.3.6 需

丁若鏞은 《周易四箋·需》에서 “又其爲字，從雨從天。(天古文作) 雨在天則雲也。[또 그 글자는 ‘雨’를 따르고 ‘天’을 따른다. (‘天’의 古文은 으로 적는다) 비가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 된다.]”라고 하여 ‘需’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 《說文·雨部》에서 “霈，頌也。遇雨不進，止頌也。從雨而聲。《易》曰：‘雲上於天，需。’[‘霈’는 ‘기다리다’의 뜻이다. 비를 만나 가지 못하고 멈춰 기다리는 것이다. ‘雨’의 뜻을 따르고, ‘而’의 소리를 따른다. 《易》에서 ‘하늘에 구름이 올라가 있으면 기다린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需’의 ‘而’를 聲符로 풀이하였는데, 이에 대해 徐鉉은 “李陽冰據《易》‘雲上於天’云：‘當從天，然諸本及前作所書皆從而，無有從天者。[李陽冰이 《易》의 ‘하늘에 구름이 올라가 있다.’에 근거하여 ‘天’을 따라야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여러 판본과 이전에 지은 책이 모두 ‘而’를 따르는데, ‘天’을 따르는 것은 없다.]”라고 하여 李陽冰이 ‘需’字에 대해 ‘天’을 따른다고 풀이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丁若鏞은 ‘天’의 古文 字形을 근거로 李陽冰의 설과 같이 ‘需’字에 대해 ‘天’을 따르는 會意字로 설명하였다.

## 3. 字形變遷

www.kci.go.kr

《周易四箋》의 文字註釋에는 象形字·會意字·形聲字 등의 六書에 관한 풀

이뿐만 아니라 字形變遷에 대한 풀이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 ‘乾’·‘舟’·‘晉’·‘鼎’·‘豐’ 등의 5자에 대한 文字註釋을 통해 丁若鏞의 漢字字形變遷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1 乾

丁若鏞은 《周易四箋·乾》에서 “乾者, 氣也. 古篆, 氣作氣, 作☰, 又作𠄎, 作氣. 𠄎者, 𠄎氣之轉隸也. (古文氣早二字皆作氣) 乞者, 氣之轉隸也. (篆又作𠄎, 此以卦爲字也.) [‘乾’은 氣를 뜻한다. 옛 篆書에서는 ‘氣’를 ‘氣’·‘☰’·‘𠄎’·‘氣’ 등으로 적었다. 𠄎은 ‘𠄎’와 ‘氣’가 바뀌어 隸書로 된 것이다. (古文에서 ‘氣’와 ‘早’ 두 글자 모두 ‘氣’로 적는다.) ‘乞’는 ‘氣’와 ‘☰’가 바뀌어 隸書로 된 것이다. (篆書에서 ‘☰’로 적기도 하는데, 이 字形은 卦를 글자로 삼은 것이다.)”라고 하여 ‘乾’의 좌우 글자 모두 원래 ‘氣’字였는데, 隸書로 바뀔 때 따라 𠄎과 ‘乞’로 변한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許慎은 《說文·乙部》에서 ‘乾’字에 대해 “𠄎, 上出也. 從乙, 乙, 物之達也. 軛聲. 𠄎, 籀文乾. [‘𠄎’은 위로 나오는 것이다. ‘乙’의 뜻을 따르는데, ‘乙’은 사물이 도달하는 것이다. ‘軛’의 소리를 따른다. ‘𠄎’은 籀文의 ‘乾’이다.]”라고 하여, ‘乾’字가 ‘乙’과 ‘軛’이 결합된 形聲字로 풀이하였다. 또한 <軛部>에서 ‘軛’字에 대해 “𠄎, 日始出, 光軛軛也. 從旦𠄎聲. [‘𠄎’은 해가 뜨기 시작하여 빛나는 모습을 뜻한다. ‘旦’의 뜻을 따르고, ‘𠄎’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여 ‘軛’字를 ‘旦’과 ‘𠄎’이 결합된 글자로 풀이하였다. 《甲骨文編》과 《金文編》모두 ‘乾’字를 수록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乾’을 비교적 나중에 만들어진 形聲字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乾’에 대해 원래 ‘氣’字가 변한 𠄎과 ‘乞’이 결합된 會意字로 풀이한 丁若鏞의 풀이가 古文字 字形에 따라 임의로 해석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丁若鏞의 이러한 풀이를 통해 그가 古文字 字形에서 隸書로 변하는 隸變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2 舟

丁若鏞은 《周易四箋·恒》에서 “此之謂恒也. (古文恒與亘通. 象舟竟兩岸也.) [이것을 ‘恒’이라고 한다. (古文에서는 ‘恒’字와 ‘亘’字가 통용되었다. 배가 양쪽 언덕을 오가는 것을 象形한 것이다.)]”라고 하여 ‘恒’字의 字形에 대해 설명하였다. 許慎은 《說文·二部》에서 “𠄎, 常也. 從心, 從舟在二之間上下. 心以舟施, 恆也. 𠄎, 古文恆從月. 《詩》曰: ‘如月之恆.’ [‘𠄎’은 ‘항상’의 뜻이다. ‘心’의 뜻을 따르고 ‘舟’가 ‘二’ 사이에서 위 아래로 오가는 것을 따른다. 마음을 배로 표현하였으니 영원한 것이다. ‘𠄎’은 古文의 ‘恆’으로 ‘月’을 따른다. 《詩》에 ‘달과 같이 영원하다.’의 구절이 있다.]”라고 하여 ‘心’과 ‘舟’가 ‘二’ 사이에 있는 글자로 분석하였을 뿐 ‘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았다. 《正字通》의 ‘恒’에 대한 풀이를 보면 “徐鍇傳會舟竟兩岸之說, 非也. [徐鍇가 牽強附會하여 배가 양쪽 언덕을 오가는 것으로 풀이하였는데, 잘못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이 徐鍇의 풀이를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丁若鏞은 ‘恒’의 ‘亘’ 字形에 대해 겉으로 보이는 楷書體에 따라 ‘二’와 ‘日’이 결합된 字形으로 보지 않고, ‘日’이 ‘舟’字가 변해서 된 것이라는 《說文》과 徐鍇의 說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 3.3 晉

丁若鏞은 《周易四箋·晉》에서 “鏞案, 晉者, 兩至之日也. 古作晉, 可驗也. 卦自觀來. 巽一陰之始生者, 夏至也. 又自小過來, 震一陽之始生者, 冬至也. [내가 살펴보면, ‘晉’은 두 ‘至’의 날이다. 古字를 ‘晉’로 적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卦가 觀卦에서 왔는데, 巽은 一陰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니 夏至에 해당한다. 또한 小過卦에서도 왔는데, 震은 一陽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니 冬至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晉’字의 古字를 근거로 ‘夏至’와 ‘冬至’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로 풀이하였다. 許慎은 《說文·日部》에서 ‘晉’字에 대해 “晉, 進也. 日出萬物進. 從日從辵. 《易》曰: ‘明出地上, 晉.’ [晉]은 ‘나아가다’의 뜻이다. 해가 뜨면 萬物이 나아가게 된다. ‘日’와 ‘辵’의 뜻을 따른다. 《易》에서 ‘광명이 땅 위로 나오게 되는 것을晉이라 한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日’과 ‘辵’을 따르는 글자로 풀이하고, <至部>에서 ‘至’字에 대해 “至, 到也. 從二至. [至]은 ‘도달하다’의 뜻이다. 두 ‘至’를 따른다.”라고 하여 ‘도달하다’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丁若鏞의 뜻풀이가 許慎의 뜻풀이와 다르지만 ‘晉’의 上部 字形이 ‘至’에서 變遷된 것이라고 풀이한 점에 있어서는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丁若鏞이 《周易四箋》에서 글자의 뜻을 풀이함에 있어 古文字 字形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글자 字形이 變遷된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4 鼎

丁若鏞은 《周易四箋·鼎》에서 “鼎字, 象目在股上, 卽離巽之合也. (巽爲股) [鼎]字는 눈이 허벅지 위에 있는 것을 象形한 것으로 離와 巽이 결합된 것이다. (巽은 허벅지이다.)”라고 하여 ‘鼎’字에 대해 ‘目’字가 결합된 것으로 풀이하였다. 許慎은 《說文·鼎部》에서 ‘鼎’字에 대해 “鼎, 三足兩耳, 和五味之寶器也. 昔禹收九牧之金, 鑄鼎荊山之下, 入山林川澤, 螭魅罔兩, 莫能逢之, 以協承天休. 《易》卦: ‘巽木於下者爲鼎’, 象析木以炊也. 籀文以鼎爲貞字. [鼎]은 세 개의 다리와 두 개의 귀를 가진 五味를 조화시키는 보배로운 그릇이다. 옛날에 禹임금이 아홉 개의 청동을 모아 荊山 아래에서 솥을 주조하여 山川에 들어갔는데, 도깨비들이 당해내질 못했다. 이것으로 천하가 태평하도록 협력하여 받들었다. 《易》卦에서 ‘아래에 나무를 넣어 鼎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는데, 나무를 쪼개 불을 때는 것을 상형한 것이다. 籀文에서는 ‘鼎’으로 ‘貞’字를 대신해 썼다.”라고 하여, ‘鼎’字에 대해 솥을 象形한 글자로 풀이하였는데, 丁若鏞이

《說文》의 풀이를 따르지 않고, ‘鼎’字의 楷書體에 따라 풀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鼎’字가 字形變遷에 따라 그 일부 字形이 ‘目’과 같이 변했는데, 이러한 變遷 字形에 대해 丁若鏞이 임의로 해석한 것이다.

### 3.5 豐

丁若鏞은 《周易四箋·豐》에서 “豐之爲字, 象兩丰隆高. (高如山) 古文作豊. (皆從豆) 丰者, 艸盛也. (《說文》云‘草盛者, 其根必深, 故字從豆, 上下達.’) 亦作𧯛. (古文也) 豐滿曰丰也. (鄭風云: ‘子之丰兮.’) 豆與𧯛通. (古斗豆字同) 象量器之上黍稷盛滿也. [‘豊’字는 두 개의 ‘丰’이 높이 솟아오른 것을 象形한 것이다. (산처럼 높다.) 古文은 ‘豊’으로 적는다. (모두 ‘豆’를 따른다.) ‘丰’은 풀이 무성한 것이다. (《說文》에서 ‘풀이 무성하다.’라고 한 것은 그 뿌리가 분명 깊을 것이기 때문에 ‘豆’를 따르게 하여 위와 아래를 통하게 한 것이다.) ‘𧯛’으로도 적는다. (古文이다.) 豐滿한 것을 ‘丰’이라 한다. (<鄭風>에서 ‘그대의 풍만함 이여!’라고 하였다.) ‘豆’字와 ‘𧯛’字는 통용된다. (옛날에 ‘斗’字와 ‘豆’字는 같았다.) 용기 위에 곡식을 가득 담은 것을 象形한 것이다.”라고 하여 ‘豊’字의 뜻을 풀이함에 있어 ‘高如山’과 같이 하여 마치 ‘豊’字가 ‘山’字를 따르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許愼은 《說文·豐部》에서 ‘豊’字에 대해 “豊, 豆之豐滿者也. 從豆, 象形. [‘豊’은 제기 그릇이 가득 찬 것을 뜻한다. ‘豆’를 따르는데, 象形한 글자이다.]”라고 하여, ‘豆’를 따르는 象形字로 풀이하였다. 《說文》과 마찬가지로 이후 中國의 역대 字典에서도 ‘豊’字가 ‘山’을 따른다고 풀이한 예를 찾을 수 없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이 ‘豊’의 위 테두리 字形에 대해 임의로 풀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豊’의 위 테두리 字形이 단지 풍만함을 象形한 글자인데, 字形 변천에 따라 ‘山’字와 같이 변하여 丁若鏞이 그 變遷된 字形에 따라 해석한 것이다. 《甲骨文編》에 수록된 ‘豊’의 甲骨文 字形 豊에 따르면 위 테두리 字形 역시 ‘그릇’을 象形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說文》의 풀이

가 실제에 부합한 것이었을 알 수 있다.

## 4. 字形關係

《周易四箋》의 文字註釋을 살펴보면 丁若鏞이 字形構造와 字形變遷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字形關係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래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1 同聲符同源字

《周易四箋》의 文字註釋을 살펴보면 丁若鏞이 同聲符同源字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4.1.1 𦵏(殘)·淺·錢·線·賤·淺

丁若鏞은 《周易四箋·賁》에서 “案, 字書云: ‘𦵏, 委積貌.’ 此因漢儒誤解此文, 而承認不改也. 𦵏者, 薄小也. 水薄小則爲淺, 金薄小則爲錢, 絲薄小則爲線, 財薄小則爲賤, 人薄小則爲淺. (多不能悉指) 其爲殘薄之意審矣. 子夏傳𦵏作殘. [살펴보면, 字書에서 ‘𦵏’은 ‘겹쳐 쌓아 올린 모양’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漢儒들이 이 文章을 오해한 것으로 잘못을 거듭하여 고쳐지지 않고 있다. ‘𦵏’은 ‘얇고 작은 것’을 뜻한다. 물이 얇고 적은 것이 ‘淺’이고, 쇠가 얇고 작은 것은 ‘錢’이며, 실이 가늘고 미세한 것은 ‘線’이고, 재물이 적은 것은 ‘賤’이고 사람이 왜소한 것은 ‘淺’인데, (많아 일일이 지적할 수 없다.) 그 얇고 작은 뜻을 잘 살펴야 한다. 《子夏傳》에는 ‘𦵏’이 ‘殘’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여 ‘𦵏(殘)’이 갖고 있

는 공통 뜻에 대해 설명하고 그 뜻을 갖고 있는 ‘淺·錢·線·賤·僂’ 글자들을 나열하여 그 뜻을 풀이하였다. 許愼은 《說文·水部》에서 ‘淺’字에 대해 “𣶒, 不深也. 從水淺聲. [‘𣶒’은 깊지 않은 것이다. ‘水’의 뜻을 따르고, ‘淺’의 소리를 따른다.]”이라고 하여, ‘깊지 않다’의 뜻으로 풀이하였고, <人部>에서 ‘僂’字에 대해 “𠂔, 淺也. 從人淺聲. [‘𠂔’은 얽은 것이다. ‘人’의 뜻을 따르고, ‘淺’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여, ‘淺’으로 ‘僂’의 뜻을 풀이하였는데, 이러한 《說文》의 풀이를 근거로 王力은 《同源字典》에서 ‘淺’과 ‘僂’을 同源字로 설명하였다. 殷寄明은 《語源學概論》에서 “王子韶가 먼저 ‘右文說’을 주장했는데, ‘淺’字를 例로 들어 ‘작다’의 뜻이 있음을 말하고 ‘작다’의 뜻을 가진 ‘淺·錢·殘·賤’ 등의 글자들을 모두 열거하여 4글자의 ‘작다’ 뜻의 내원을 밝혔다.”<sup>4)</sup>라고 하여 ‘淺·錢·殘·賤’ 등의 글자가 모두 ‘小義’의 뜻을 갖고 있는 풀이가 王子韶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의 설명이 王子韶의 것에 근거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丁若鏞이 王子韶가 제창한 ‘右文說’의 영향을 받아 同源字에 대한 인식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1.2 孚·郭·葍·脬·浮

丁若鏞은 《周易四箋·中孚》에서 “邑虛中曰郭, (外城也) 葍虛中曰葍, (中皮也) 腹虛中曰脬. (又物之虛中者, 入水剛浮) 中孚者, 虛中也. [邑이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을 ‘郭’라고 하고, (外城을 뜻한다.) 갈대가 속이 비어 있는 것을 ‘葍’라고 하고, (가운데 겹질을 뜻한다.) 배가 가운데 비어 있는 것을 ‘脬’라고 한다. (또 사물 가운데 속이 빈 것은 물에 들어가면 ‘浮’하게 된다.) 中孚는 가운데가 빈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고, <說卦傳>에서 “虛中曰孚, 虛中而入於水, 則其物爲浮. (字從孚) 虛中而圍於邑, 則其名爲郭. (字從孚) 葍脬亦然. (亦虛中) [가운데가 빈 것을 ‘孚’라고 한다. 가운데가 비어있어 물에 들어가면 물건은 ‘浮’

4) “王子韶首創‘右文說’, 以‘淺’字爲例. 云有小訓. 然後列舉淺, 錢, 殘, 賤皆有‘小義’. 以明四字中‘小義’之來由.” - 殷寄明, 《語源學概論》, 上海教育出版社, 2000, 61쪽.

하고, (글자가 ‘孚’를 따른다.) 가운데가 비어 있고 읍을 둘러싸고 있어 ‘郭’라고 하였다. (글자가 ‘孚’를 따른다.) ‘孳’와 ‘脬’ 역시 마찬가지이다. (역시 가운데가 비어 있다.)”라고 하여 ‘郭·孳·脬·浮’ 등의 글자들이 모두 가운데가 빈 ‘孚’의 뜻을 따른다고 설명하였다. 劉熙는 《釋名·釋形》에서 “脬, 鞞也. 鞞, 空虛之言也. 主以虛承水, 或曰膀胱, 言其體短而橫廣也. [‘脬’는 ‘鞞’의 뜻이다. ‘鞞’는 속이 빈 것을 말한다. 빈 것을 주로 하여 물을 내보내는 것이다. 膀胱이라고도 하는데, 그 형체가 짧지만 폭이 넓은 것을 일컫는 것이다.]”라고 하여 ‘脬’의 뜻에 대해 빈 공간의 뜻을 가진 ‘鞞’字의 뜻으로 풀이하였는데, 丁若鏞의 뜻풀이가 이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蔣禮鴻은 《漢語語源學·序》에서 “漢代 劉熙가 지은 《釋名》은 사물 이름의 유래를 탐구하고자 한 책으로 이미 어원문제를 다루었다.”<sup>5)</sup>라고 하여 劉熙의 《釋名》에 대해 사물명의 유래를 밝혀 語源에 대해 탐색한 책으로 소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丁若鏞이 《釋名》에서 밝힌 ‘脬’字의 語源을 기반으로 ‘脬’字와 語源이 같은 글자들을 한층 더 나아가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王力은 《同源字典》에서 ‘浮’의 同源字에 대해 ‘汙·桴·人’ 3자만 예로 들었고, 殷寄明은 《漢語同源字詞叢考》에서 ‘孚’를 취하는 글자로 ‘桴·孳·郭·浮’ 등의 글자를 예로 들고 그 語源義를 ‘外表, 外層’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丁若鏞의 설명이 후대 中國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章太炎이 《文始·幽東侵緝類》에서 “《說文》: ‘勺, 裹也. 象人曲形有所包裹.’ 一孳乳爲包, 妊也. 再孳乳爲孚, 卵孚也. 三孳乳爲胞, 兒生裹也. 四孳乳爲脬, 旁光也. ……四孳乳爲郭, 郭也. [《說文》에서 ‘勺’은 “싸다”의 뜻이다. 사람이 몸을 굽혀 싸고 있는 모습을 상형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 번 파생되어 ‘包’가 되는데, ‘임신하다’의 뜻이다. 다시 파생되어 ‘孚’가 되는데, ‘알이 부화하다’의 뜻이다. 세 번째로 파생되어 ‘胞’가 되는데, ‘아이를 싸다’의 뜻이다. 네 번째로 파생되어 ‘脬’가 되는데, ‘방광’의 뜻이다. ……네 번째로 파생되어 ‘郭’가

5) “漢代劉熙著《釋名》一書, 目的在探索事物得名的由來, 已經涉及語源問題了.”

되는데, ‘성곽의 뜻이다.’”라고 하여 ‘孚’·‘脬’·‘郭’를 同源詞로 설명하고, 그 語源義를 ‘싸여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싸여 있는 것’과 ‘가운데가 빈 것’의 뜻이 서로 일맥 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세 학자들의 풀이를 종합해 보면 殷寄明은 그 공통된 뜻을 ‘外表, 外層’으로 보았기 때문에 ‘孚’·‘孥’·‘郭’·‘浮’의 同源字에서 ‘脬’를 배제하였고, 章太炎은 ‘싸여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孚’·‘脬’·‘郭’의 同源字에서 ‘孥’와 ‘浮’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郭’·‘孥’·‘脬’·‘浮’ 등의 글자들을 ‘가운데가 빈 것’으로 모두 포괄한 丁若鏞의 語源義가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4.1.3 夬·缺·決·玦·袂·快

丁若鏞은 《周易四箋·夬》에서 “鏞案, 夬者, 缺也. 缶夬爲缺, 水夬爲決, 玉夬爲玦, 衣夬爲袂, 心夬爲快, 其義一也. 卦形充滿, 而唯兌口微缺, (說卦兌爲決) 此其所以得名也. [내가 살펴보면, ‘夬’는 이지러진 것을 뜻한다. ‘缶’가 깨진 것을 ‘缺’이라 하고, ‘水’가 터진 것을 ‘決’이라 하고, ‘玉’이 이지러진 것을 ‘玦’이라 하고, ‘衣’가 띄워진 것을 ‘袂’이라 하며, ‘心’이 트인 것을 ‘快’라 하니 그 뜻이 모두 같다.卦의 형태는 충만한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다만 兌의 입이 약간 이지러져 있으니, (<說卦傳>에서 兌는 ‘決’의 뜻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그러한 이름을 얻은 까닭이다.]”라고 하고, <旅>에서 “又按, 夬者, 決也. 心夬爲快, 水夬爲決, (見夬卦) 兌之德, 本決, (見說卦) 故兌則爲快. [다시 살펴보면, ‘夬’는 ‘決’을 뜻한다. ‘心’이 터진 것을 ‘快’라 하고, ‘水’가 터진 것을 ‘決’이라 한다. (夬卦에 보인다.) 兌의 성격이 본래 터짐에 있으므로 (<說卦傳>에 보인다.) 이러한 까닭에 兌는 곧 ‘快’의 뜻이 된다.]”라고 하여 이지러진 뜻을 갖고 있는 ‘缺’·‘決’·‘玦’·‘袂’·‘快’ 등을 통해 ‘夬’의 뜻을 설명하였다.

章太炎은 《文始·歌泰寒類》에서 “《說文》: ‘夬, 分決也. 從又, 象決形.’ 此合體指事字也. 孳乳爲決, 行流也. 決又變易爲潰, 漏也. 潰孳乳爲殯, 爛也. ……夬又孳乳爲缺, 器破也. 缺又孳乳爲玦, 玉佩也, 如環而缺. 爲缺, 城闕其

南方也, 爲闕, 門觀也. [《說文》에서 ‘夬’은 “갈라지다”의 뜻이다. 又를 따르며 갈라지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이 글자는 合體指事字이다. 파생되어 ‘決’이 되는데, ‘물이 흐르는 것’을 뜻한다. ‘決’은 또 變易되어 ‘潰’가 되는데, ‘새다’의 뜻이다. ‘潰’는 파생되어 ‘殞’가 되는데, ‘문드러지다’의 뜻이다. …… ‘夬’은 또 파생되어 ‘缺’이 되는데, ‘그릇이 깨진 것’을 뜻한다. ‘缺’은 또 파생되어 ‘玦’이 되는데, ‘玉佩’를 뜻하며 허리에 둘렀을 때 흠이 있게 되는 것과 같다. ‘缺’로도 되는데, 성의 남쪽을 비워 궁문을 만들어 지켜보기 위함이다.]”라고 하여, 《說文》을 인용해 ‘夬’의 뜻이 ‘갈라지다’라고 설명하고 ‘決’·‘潰’·‘殞’·‘缺’·‘玦’·‘缺’ 등이 ‘夬’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王力은 《同源字典》에서 “水缺爲決, 玉缺爲玦, 器缺爲缺, 門缺爲闕, 四字同源. [물이 터지면 ‘決’이 되고, 玉에 흠집이 생기면 ‘玦’이 되며, 그릇이 깨지면 ‘缺’이 되고, 門이 터지면 ‘闕’이 된다. 이 4글자는 어원이 같다.]”라고 하여, ‘決’·‘玦’·‘缺’·‘闕’ 4자를 同源字로 설명하였으며, 殷寄明은 《漢語同源字詞叢考》에서 ‘夬’를 취하는 글자로 ‘缺’·‘玦’·‘決’·‘抉’·‘缺’·‘缺’·‘夬’·‘夬’·‘夬’·‘夬’·‘夬’·‘夬’ 등의 글자를 예로 들고 그 語源義를 ‘缺’로 설명하였는데, 이들이 예로 든 글자 중 ‘決’·‘玦’·‘缺’ 3자가 丁若鏞이 든 예와 일치하고, 그 語源의 또한 丁若鏞이 풀이한 뜻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章太炎, 王力, 殷寄明이 예로 든 글자에는 ‘袂’와 ‘快’ 2자가 빠져 있는데, 이 중 ‘袂’에 대해 劉熙가 《釋名·釋衣服》에서 “袂, 掣也. 掣, 開也. 開張之, 以受臂屈伸也. [‘袂’은 ‘掣’의 뜻인데, ‘掣’는 ‘열다’의 뜻이다. 열어 확장시켜 팔을 굽히고 피게 한 것이다.]”라고 하여 ‘袂’의 뜻이 ‘벌리다’와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였는데, ‘벌리다’의 뜻이 ‘트이다’의 뜻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때 ‘袂’ 역시 ‘決’·‘玦’·‘缺’ 등과 語源이 같은 同源詞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丁若鏞이 예로 든 글자 중 ‘決’·‘玦’·‘缺’ 3자가 語源義와 글자 관계에 대한 설명 모두 中國 제 학자들과 같고, ‘袂’는 그 語源義에 대한 설명만이 中國 학자와 같으며, ‘快’는 語源義와 글자 관계에 대한 설명 모두 丁若鏞의 설명에서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快’를 ‘缺’·‘決’·‘玦’·‘袂’ 등의 글자들과 같은



뜻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 때 사물에 국한되지 않고 감정을 나타내는 글자까지 포괄해 글자관계를 설명하려고 한 丁若鏞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 4.2 或體字·通假字

丁若鏞의 《周易四箋》文字註釋을 보면 ‘或作’·‘通作’·‘與~通’ 등을 통해 관련 글자를 제시하여 글자의 뜻풀이에 활용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丁若鏞이 或體字와 通假字에 대한 인식을 갖고 《周易四箋》의 뜻풀이에 적극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관련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2.1 禴·爞·淪

丁若鏞은 《周易四箋·萃》에서 “禴者, 禘也. (王制疏) 酌損之義也. (龠勺皆量器之名.) 舊本禴, 或作爞. (劉瓛本) 爞與淪通. (薄熟也) 淪菜之祭也. 王制, 春祭曰禴, 周禮以禴夏享, (宗伯文) 蓋以春夏, 時物鮮薄, 務從約略也. (互見損既濟) 王弼以禴爲春祭. [‘禴’은 ‘禘’를 가리키는데, (<王制>편의 疏) 참작하여 간소하게 한다는 뜻이다. (‘龠’과 ‘勺’은 모두 용량을 재는 그릇의 이름이다.) 舊本에서는 ‘禴’을 ‘爞’으로 적었고, (劉瓛本) ‘爞’은 ‘淪’과 通假해서 적었다. (살짝 익힌다는 뜻이다.) 나물을 삶아 올리는 제사를 가리킨다. <王制>에서는 봄제사를 ‘禴’이라고 하였고, 《周禮》에서는 ‘禴으로 여름에 제사지낸다.’고 하였다. (<宗伯>文) 대개 봄과 여름에 産物이 드물어 힘써 간소함을 따른 것이다. (損卦와 既濟卦에 모두 보인다.) 王弼은 ‘禴’을 봄제사로 보았다.]”라고 하여, ‘禴’의 뜻을 설명함에 있어 ‘禴’의 或體字인 ‘爞’과 通假되는 ‘淪’字를 제시하여 ‘禴’이 ‘나물을 삶는 뜻’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小部》에서 ‘禴’의 聲訓 用例에 대해 “[聲訓] 《公

羊·桓》八傳注, 麥始孰可汙, 故曰禘. 《春秋繁露》, 祭義, 夏約故曰禘, 貴所初約也. 《爾雅·釋天》, 夏祭曰禘, 注, 新菜可汙. 孫注, 禘, 薄也. 夏時百穀未登可薦者薄也. [《公羊傳·桓》의 여덟 번째 傳 注에 보리가 익기 시작하면 삶을 수 있기 때문에 '禘'이라고 한 것이다. 《春秋繁露》에서 '제사의 뜻이다. 여름에는 간소하게 하기 때문에 禘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爾雅·釋天》에서 여름 제사를 '禘'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그 注에서 '새로 난 채소는 삶을 수 있다.'라고 하였고, 孫注에서 '禘는 薄의 뜻이 있다. 여름에 모든 곡식이 익지 않아 올릴 수 있는 것이 드물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禘'이 '삶다'의 뜻을 지닌 '汙'과 '간략함'의 뜻을 지닌 '約'으로 聲訓된다는 것을 밝혔는데, 朱駿聲이 설명한 '삶다'의 뜻과 '간략함'의 뜻 모두 丁若鏞의 설명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만 朱駿聲이 《公羊傳》注를 통해 '禘'이 '삶다'의 뜻을 가진 '汙'과 연관된다는 것을 밝힌 데 반해, 丁若鏞은 '禘'의 或體字인 '禘'과 通假되는 '禘'字를 제시하여 그 뜻의 연관성을 설명하였고, 朱駿聲이 '삶다'와 '간략함'의 뜻을 분리하여 설명한 것에 비해 丁若鏞은 '살짝 익힌다.'는 뜻으로 설명하여 '간략함'의 뜻도 가진 '삶다'의 뜻으로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康熙字典·火部》에서 '禘'에 대해 《集韻》을 인용하여 “本作禘, 夏時祭也. 同禘禘. [원래 '禘'으로 적었다. '여름에 지내는 제사'의 뜻이다. '禘', '禘'과 같다.]”라고 하였고, <示部>에서 '禘'에 대해 《禮記·王制》의 疏를 인용하여 “禘, 薄也. 春物未成祭品鮮薄. [禘는 '드물다'의 뜻이다. 봄에 만물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사로 쓸 수 있는 것이 드물기 때문이다.]”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간략함'의 뜻에 대해 朱駿聲이 《春秋繁露》과 《爾雅》孫炎의 注를 근거로 설명한 것에 비해 丁若鏞은 《禮記·王制》의 疏의 풀이에 따라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4.2.2 艱施·剝剝·剝杙·嶮岬

丁若鏞은 《周易四箋·困》에서 “案, 艱施, 高險貌, 或作剝剝, (《說文》然) 或作剝杙, (薛仁貴之本) 通作嶮岬, (山高貌) 許慎云, 艱施, 不安也. 總之, 爲艮山嶮岬之象. (或曰, 艱施者, 門臬之名. 艮亦爲門也. 臬, 櫬也) [살펴보면, ‘艱施’은 ‘높고 험한 모습’의 뜻인데, ‘剝剝’로 적기도 하고, (《說文》이 그렇다.) ‘剝杙’로 적기도 하며 (薛仁貴本) ‘嶮岬’로 通假해서 적기도 한다. (산이 높은 모습이 다.) 許慎은 ‘艱施’에 대해 ‘不安하다’의 뜻으로 풀이하였는데, 정리하자면 艮의 산이 험준한 象이 된다. (혹은 ‘艱施’을 ‘문지방’의 이름으로 풀이하는데, 艮은 또한 ‘門’이 되며, ‘臬’은 문지방이 된다.)]”라고 하여, ‘艱施’에 대해 或體字로 적은 ‘剝剝’·‘剝杙’ 등과 通假字로 적은 ‘嶮岬’을 제시하여 ‘艱施’의 ‘높고 험한 모습’의 뜻을 보충 설명하였다. 특히 높은 산의 뜻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山’을 部首로 취하는 ‘嶮’과 ‘岬’을 通假字로 제시한 것을 보면 그가 글자를 설명함에 있어 漢字의 表意 기능을 적극 활용하려한 것을 알 수 있다.

## 4.2.3 險·巖·巖

丁若鏞은 《周易四箋·豫》에서 “又坎, 險也. 險與巖巖, 本相通用. [또한 坎은 ‘險’을 뜻하는데, ‘險’과 ‘巖’, ‘巖’은 본래 서로 通用된다.]”라고 하여 ‘險’·‘巖’·‘巖’ 3字가 通用된다고 하고, <坎>에서 “又坎者, 險也. 物之險者, 莫如巖石, 故巖之與險, 義本相通. [또한 坎은 ‘險’을 뜻하는데, 사물 중에서 險難한 것이 巖石만 한 것이 없는 까닭에 ‘巖’과 ‘險’은 뜻이 본래 서로 통한다.]”라고 하여, ‘險’과 ‘巖’이 서로 공통된 뜻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丁若鏞이 ‘險’과 ‘巖’을 그 語源이 같은 同源詞로 보았고, 이 글자들이 서로 通用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즉 丁若鏞은 坎卦의 險難함을 설명함에 있어 ‘險’과 뜻이 통하는 ‘巖’을 통해 險難한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면서 ‘險’과 ‘巖’ 뜻이 통할 뿐만 아니라 通用된다고까지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朱駿聲의 《說文通訓定聲·謙部》를 찾아보면 ‘巖’에 대해 “岸也。從山巖聲。字亦作巖，與嶮略同。〔‘岸’의 뜻이다. ‘山’의 뜻을 따르고, ‘巖’의 소리를 따른다. 글자를 ‘巖’으로 적기도 한다. ‘嶮’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한 설명을 통해 ‘巖’이 ‘嶮’와 同字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巖’과 ‘險’이 서로 通用되어 쓰인 예를 찾아볼 수 없는데, 기타 字書에서도 역시 두 글자가 通用되어 쓰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說文》에서는 朱駿聲의 풀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巖’의 뜻을 ‘岸也’로 설명하였다. 王力은 《同源字典》에서 이러한 《說文》의 풀이를 근거로 ‘巖’의 同源字를 ‘岸’으로 설명하였는데, 殷寄明의 《漢語同源字詞叢考》와 章太炎의 《文始》에서는 ‘險’과 ‘巖’의 同源字에 대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劉熙의 《釋名》에서도 ‘險’과 ‘巖’에 대해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朱駿聲이 ‘巖’에 대한 풀이에서 “<西京賦>: ‘巖峻嶮嶭’, 注險也。〔<西京賦> ‘바위가 높고, 산이 험준하다.’의 注에서 ‘험준하다’의 뜻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巖’을 ‘險’으로 풀이한 예가 있음을 밝혔는데, ‘險’을 ‘巖’의 聲訓字로 본다면 두 글자의 뜻이 서로 통하는 것으로 설명한 丁若鏞의 풀이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 結論

이상으로 《周易四箋》에 보이는 丁若鏞의 漢字字形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있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丁若鏞의 문자학적 특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丁若鏞은 글자를 풀이함에 있어 楷書體의 보이는 字形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근원자형인 古文字도 참고하여 글자를 풀이하였기 때문에 漢字의 字形 구조와 그 변천 字形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풀이를 할 수 있었다.

둘째, 丁若鏞은 《周易四箋》의 뜻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글자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글자 풀이에는 품에 대한 풀이는 거의 없고 뜻에 대한 풀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形聲字를 설명함에 있어 聲符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고, 義符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그가 글자 자체를 설명하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安, 利, 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丁若鏞이 會意字에 대해 ‘象’으로 풀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丁若鏞이 글자풀이에 있어 象形字와 會意字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丁若鏞이 同源字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그의 설명이 中國學者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계승 발전시킨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周易四箋》에는 ‘𠄎’·‘孚’·‘夫’의 경우와 같은 同聲符同源字에 대해 풀이한 예가 많지 않은데 반해, ‘禰’·‘龜旒’·‘險’과 같은 通字에 대한 예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險’과 ‘巖’에 대한 풀이를 통해 丁若鏞의 通字 풀이에서도 그의 同源字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후 丁若鏞의 通字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의 同源字에 대한 인식을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參考文獻 >

-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91.  
 方仁·張正郁 譯註, 《譯註周易四箋》(1)~(8), 소명出版社, 2007.  
 孫海波, 《甲骨文編》, 中華書局, 1965.  
 楊元錫, 《朝鮮後期文字訓詁學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6, 12.  
 容庚, 《金文編》, 中華書局, 1985.  
 王念孫, 《廣雅疏證》, 江蘇古籍出版社, 2000.  
 王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91.

- 王弼 撰，樓宇烈 校釋，《周易注》，中華書局，2011。
- 劉熙 撰，畢沅 疏證，王先謙 補，《釋名疏證補》，中華書局，2008。
- 殷寄明，《語源學概論》，上海教育出版社，2000。
- 李道平 撰 潘雨廷 點校，《周易集解纂疏》，中華書局，1994。
- 李圃 主編，《古文字詁林》，上海教育出版社，2005。
- 任繼昉，《漢語語源學》，重慶出版社，1992。
- 張玉書、陳廷敬等，《康熙字典》，上海商務印書館新鐫銅印本。
- 章太炎《文始》，《章太炎全集》(七)，上海人民出版社，1999。
- 丁若鏞，《與猶堂全書》，韓國文集叢刊 281~286卷，民族文化推進會，2002。
- 丁若鏞，《周易四箋》，韓國經學資料集成 第110卷，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1997。
- 丁若鏞，《〈定本〉與猶堂全書15~16·周易四箋 I~II》，茶山學術文化財團，2012。
- 丁若鏞，《與猶堂全書》，韓國古典綜合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朱駿聲，《說文通訓定聲》，武漢市古籍書店，1983。
- 朱熹 撰，廖名春 點校，《周易本義》，中華書局，2009。
- 中華民國教育部國語推行委員會 編輯，《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
- 河永三，〈《六書策》所見朴齊家與李德懋之文字觀比較〉，《國際中國學研究》第6輯，韓國中國學會，2003。
- 許慎 撰，徐鉉 等 校定，《說文解字》，中華書局，1992。

### 〈中文概要〉

本研究限於《周易四箋》，考察了茶山對《周易》註釋的內容，把它歸類於字形構造、字形變遷、字形關係，試探了茶山文字注釋的特點。《周易四箋》裏，有茶山的文字註釋，也有他兒子的文字註釋，即是丁學淵和丁學游的文字註釋。他們註釋《周易》，或參考了中國字書的解釋，也考慮了《周易》卦形，有跟《說文》說解一樣的解釋，也有跟《說文》說解不一樣的解釋。《周易四箋》的文字註釋特點有以下幾點。第一，茶山釋形，有的參考中國字典的古文字資料，近於造字理據。有的依據楷書形體，遠於造字理據。他釋形之誤主要來源於他重義的態度。第二，茶山對會意字說解裏，不僅有以從釋會意字形的說解，也有以象

釋會意字形的說解. 據此, 可以看到他對象形和會意不太嚴格的態度. 第三, 茶山在《周易四箋》對形聲字, 主要解釋了義符的義, 很少解釋聲符的音. 這是因為他注箋《周易》的目的在於釋義, 不在於釋音. 所以他解釋的聲符主要是兼義的. 卽茶山注箋文獻, 要以字符義來提高文獻的解讀效果, 盡量解釋漢字字形所表的意義. 這導致了讓他解釋聲符的意義. 可是這也引起他解釋兼義的聲符, 進一步解釋同聲符同源字的字際關係.

關鍵詞: 丁若鏞, 周易四箋, 漢字字形, 文字學, 漢字學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3. 30.	2014. 4. 30.	2014. 5. 8.	2014. 5. 24.	2014. 5. 31.